

오승환, 토론토 마무리투수 되나

(MLB)

여성 폭행 오수나 '행정상 휴직' 존 기브스 감독, 빈자리 메꿀 전력으로 오승환 등 언급



여성을 폭행해 전력에서 이탈하게 된 오수나를 대신해 토론토의 마무리투수로 오승환(사진)이 거론되고 있다.

메이저리그(MLB)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마무리 투수인 로베르토 오수나(23)가 폭행 혐의로 체포돼 전력에서 이탈했다.

미국 MLB닷컴은 9일(한국시간) 폭행 혐의로 체포된 오수나가 메이저리그 사무국으로부터 행정상 휴직(administrative leave) 선수로 분류돼 25일 로스터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토론토 경찰에 따르면 오수나는 여성을 폭행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비롯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조사를 받고 풀려난 오수나는 6월19일 토론토 법정에 선다.

토론토 구단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내린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 구단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오수나의 행동은 우리 구단의 가치와 상반된 것"이라며 "토론토 경찰이 아직 조사하고 있는 사안인 여서 추가적인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로스 앳킨스 토론토 단장은 "최근 몇 년 동안 메이저리그는 이와 같은 사건에 매우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 오수나의 유죄 여부를 떠나 강한 징계에 내러질 수 있다"며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해 온 정책을 지지한다. 이런 정책이 야구를 통해 상대팀을 이기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메이저리그 규정에 따르면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선수에 대해 최대 7일 동안

행정적 휴직을 시킬 수 있다.

오수나의 로스터 제외 기간에 대해 앳킨스 단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7일을 다 채울 수도 있고, 7일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 짧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2015년 박리그에 데뷔한 오수나는 첫 해부터 20세이브(1승6패)를 수확했다. 2016년 36세이브(4승 3패) 평균자책점 2.68, 지

난해 39세이브(3승 4패) 평균자책점 3.38을 기록해 리그 정상급 마무리 투수로 자리매김했다.

올 시즌에는 15경기에서 15%이닝을 소화하며 9세이브, 평균자책점 2.93의 성적을 거뒀다.

오수나의 이탈로 토론토는 당분간 '임시 마무리'를 내세워야 한다. 존 기브스 토론토 감독은 오수나의 빈 자리를 메울 마무

리 후보로 오승환과 존 옥스퍼드, 라이언 테페라, 타일러 클리퍼드를 언급했다.

이들 중 2016~2017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마무리 투수로 뛴 경험이 있는 오승환이 강력한 후보로 꼽힌다. 오승환은 메이저리그에서 3년간 통산 40세이브를 거뒀다. 오승환은 올해 16경기에서 15%이닝을 던지며 1승 1세이브 평균자책점 1.76을 기록했다. /뉴시스



파리생제르망, 프랑스컵 우승... 시즌 3관왕

파리생제르망(PSG)이 프랑스 컵대회인 쿠프 드 프랑스 정상에 올랐다.

PSG는 9일(한국시간) 파리 파리의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레 에히비에를 2-0으로 꺾었다. 2014~2015시즌을 시작으로 이 대회 4연패다.

이미 리그와 리그컵 트로피를 거머쥔 PSG는 쿠프 드 프랑스 우승으로 2년 만에 3관왕을 완성했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조기 탈락의 아픔도 씻었다. 3부리그 소속의 레 에히비에에는 경쟁한 팀들을 따돌리고 결승까지 올랐으나 PSG의 벽에 막혀 준우승에 머물렀다.

PSG는 전반 26분 아르헨티나 출신 지오반니 로 셀소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다. 공세를 지속하던 PSG는 후반 29분 에딘손 카바니의 페널티킥 골로 썩기를 박았다.

발목 부상에 시달리고 있는 PSG 소속 네이마르는 시상식 때 등장해 동료들과 기쁨을 나눴다. 네이마르는 2018 러시아 월드컵 참가를 목표로 재활 중이다. /뉴시스

남태희, 1골 1도움... 알두하일, 챔스 16강 1차전 승

카타르 알두하일SC에서 뛰고 있는 남태희가 2018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1골 1도움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알두하일은 9일(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 알아인인 하자 빈 자에드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알아인(UAE)과의 AFC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4-2로 승리했다.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남태희는 1골 1도움으로 팀 승리의 중심에 섰다. 특히 1-0으로 앞선 전반 39분 하프라인 부근 수비 진영서부터 돌파해 골을 터뜨려 강한 인상을 남겼다.

알두하일은 원정 경기에서 4골이나 얻어 8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남태희는 1-0으로 앞선 전반 39분 역습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하프라인 수비 진영에서 공을 잡아 상대 문전까지 거침없이 돌파해 오른발 슈트로 추가골을 터뜨렸다. 알아인의 수비수 3명이 붙었지만 역부족이었다.

3-0으로 앞선 후반 10분에는 왼쪽 측면으로 쇄도하는 알모에즈 알리에게 감각적인 패스를 해 4번째 골을 도왔다.

0-4로 크게 밀린 알아인은 아흐메드 카탈, 이브라힘 디야키의 만회골로 2-4까지 추격했지만 이후 골을 기록하지 못했다.

양 팀의 2차전은 16일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알두하일의 홈구장이다. /뉴시스

월드컵개최국 러시아, 인종차별로 FIFA 징계

3월 평가전서 포그바 등 흑인 선수 향해 폭언... 제재 실효성 의문

다음달 2018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을 개최하는 러시아가 인종차별로 FIFA의 징계를 받는다.

FIFA는 9일(한국시간) 지난 3월 러시아와 프랑스의 A매치에서 발생한 러시아 관중의 인종차별 폭언을 방치한 러시아축구협회에 벌금 3만 스위스프랑(약 3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프랑스는 3월28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평가전을 했다. 이 경기에서 프랑스가 폴 포그바(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1골 1도움 활약을 앞세워 3-1로 승리했다.

그러자 흥분한 일부 러시아 관중이 포그

바 등 흑인 선수들을 향해 인종차별적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는 로라 프레셀 체육장관이 이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는 등 월드컵 개최국 러시아의 인종차별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사에 착수한 FIFA는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러시아에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인종차별이 하나의 응원문화처럼 자리잡고 있어 제재에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말들이 많다.

앞서 스타니스라브 체르체소프 러시아 감독은 "논쟁이 될만큼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고 발언, 인종차별에 대해 국제사회와 큰 인식 차이를 보였다. /뉴시스

박지성, 러시아월드컵 해설위원 활동... SBS와 계약

축구스타 박지성(37·사진)이 2018 러시아월드컵 해설자석에 앉는다.

SBS는 박지성이 러시아월드컵 기간 해설위원으로 활동한다고 9일 밝혔다. 2014년 은퇴 이후 박지성이 정식 해설위원으로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지성은 "해설에 대한 제안을 오래 전부터 받아왔고, 행정가로서의 장애와 한국 축구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고민해왔다. 축구를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하는 것도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응하게 됐다"고 전



했다.

이어 "2012년부터 K리그 대회의 주관 방송사로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온 SBS와 '한국 축구의 부흥'이라는 같은 목적으로 함께 하게 돼 기쁘다. 선수 시절부터 친밀한 관계를 이어 온 최고의 아나운서 배성재 캐스터와 '월드컵'이라는 공통분모로 의기투합해 중계석에서 호흡을 맞추게 돼 기대된다."고 말했다.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박지성은 2006년 독일대회와 2010년 남아공대회에서도 대표팀을 이끌었다. 잉글랜드 명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며 국민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박지성은 16일 일시 귀국,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뉴시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